이슬람文庫 8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이슬람의 道德觀

MORAL TEACHINGS OF ISLAM

北美지역 무슬림 학생 연합회 編著
韓國이슬람敎 中央聯合会 宣敎部 번역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The Series NO. 8 OF Islamic Literature

MORAL TEACHINGS OF ISLAM

Originally Published by the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United States and Canada.

Translated and Published by Missionary Department of the Korea Muslim Federation.

✣ 차　　례 ✣

이슬람의 道德觀

제 1 장 이슬람 도덕관의 전반적 개요

1. 도덕의 의미

사전에는 도덕을 "행위의 옳고 그름, 즉 法律이나 관습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옳은 행동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규범 일체"라고 定義되고 있다. 우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그리고 '사악한' 등의 낱말들이 가치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인 반면, '자비' '겸손' '진실함' 과 '정의' 와 같은 用語들은 어떤 특별한 몸가짐이나, 처신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서술적인 용어들인 것이다 어떤 특별한 몸가짐이나 행동—예를들면 겸손—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은 인간의 行動을 判斷하는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이 기준을 「쿠란」과 「순나」— 사도 무함맏(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소서)이 이행했던 전통—에 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분석해 볼 때 모든 인간의 행동들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의도에 따라 「알라」의 審判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 제 아무리 明白하게 이롭다 하드라도 행하는 자가 「알라」, 즉 하나님을 안 믿거나, 혹은 「알라」의 제시말씀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동의 참된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알라」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 자신만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다분

히 이기주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슬람의 도덕적 기초: 신앙심

이슬람의 교훈은 「신앙심(Iman)」과 「善行(Salihat)」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다. 聖 쿠란 말씀에;

「時間이 곧 證人일지니! 진실로 인간은 손실상태에 있나니 알라를 믿고 선행하는 자, 알라의 진리를 행하도록 꾸준히 권유하는 자외엔」(103 : 1－3)

신앙심은 하나님이 存在하심을 선언하고 그분의 예언자인 무함맏(그 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의 진실성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對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므로서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는것이다. 사실, 우리들 자신의 造物主이며, 보호자에 對한 의무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이행 되어져야 한다. 쿠란은 이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말할지어다 : 너희들의 부모, 형제, 부인, 친지들, 그리고 너희가 쌓아논 부귀와 번창하기를 바라는 사업, 그리고 너희가 안락하게 거주하는 안식처, 이 모든 것들이 알라와 그분의 사도, 그리고 알라를 위한 투쟁보다 귀중한가를. 만일 그러하다면 알라께서 그 분의 命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지어다; 알라께서는 배은망덕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느라」(9 : 24)

「알라」에 대한 신앙심과 신뢰감은 그 믿음의 행위자 자신의 여러 의도와 태도, 그리고 言行속에서 잘 나타난다. 믿는자들은 그의 믿음을 선언한 후 감사와 겸양과 사랑의 태도로 「알라」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의도들을 정화하고 「알라」의 계시와 사도 「무함맏」의 전통(Sunnah)을 실천에 옮기는 동시에 이슬람의 진리를 이웃에 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에 권장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알라」와 그 분의 사도에 복종할지어다」(8 : 120)

알라에 대한 복종은 개인적인 경건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회, 경제, 국제적인 문제들에 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각 무슬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무슬림공동체는 이 지상에 「알라」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도덕의 원칙들을 정착 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쿠란에 따르면 現世는 인간에 있어 하나의 시련의 場에 불과하며 來世야 말로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

「부귀와 자손들은 현세의 장식일 뿐이니라. 그러나 인내로 이루어 놓는 義로움과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보상과 소망을 얻게 해주느니라.」(18 : 46)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자비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나님에게 언젠가는 돌아가 현세에서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게된다고 가슴속 깊이 명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서 오는 희열, 그분의 자비를 바라고,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는자들로 하여금 현세의 행동이 來世에서 永生을 얻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해주는 것이다.

「오 平和로운 영령이여!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쁘게 너희들의 주에게로 돌아갈지니! 내 종복이 되어 천국에 임하리라.」(89 : 28~30)

반면에 來世를 믿지않고 지나치게 現世를 탐닉하다가 來世를 무시해버린 者들은 現世의 출세와 쾌락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알라」와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고 현세에 만족하여 현세를 영원한 것으로 믿는 자들아. 그리고 「알라」의 계시를 망각한 자들아. 너희들이 머무를 곳은 불지옥이 될 것이니 그것은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니라.』
(10 : 7－8)

믿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품성중의 하나는 겸양과 알라에 대한 감사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그의 實體와 現存하는 모든 것을 「알라」의 무한한 은총으로 부터 부여받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義務이자 自然的인 성향인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찬송의 어귀나 尊敬을 表示하는 行動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富, 知識, 技術, 그리고 財産—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도 나타날 수 있는것이다. 이들 믿는 자들이 지녀서는 안 될 태도로는 「알라」의 선물에 대한 배은망덕, 독선적인 태도, 자신의 성공이나 부귀, 사회적 지위, 가문·그리고 종족 등의 우월성에 대한 오만함 등이 있다. 이러한 태도들은 그 자신이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자비로움, 심지어는 자신의 不信性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에 말씀하시기를;

「알라」께서는 善行을 쌓는 믿는 자들에게 은총과 관용을 베풀지니라. 그러나 거드름을 피는 오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쓰라린 처벌을 내리셔서 벌할 것이니, 자기네들을 구하거나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라』(4 : 173)

『만일 어떤 이에게 자비를 베풀다가 도중에 멈춘다면 보라! 그는 자포자기하여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니라. 그러나 그에 내려졌던 어려움을 거두

고, 번영케 해준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로다; 「모든 악은 나에게서 사라졌노라고. 보라! 참고 善行을 쌓는자 외에는 다시 의기양양해지고 자만하게 될지니 진실로 「알라」께서는 참고 선행을 쌓는 이들에게 용서와 큰 보상을 내려 주시느니라」(11 : 9—11)

3. 이슬람의 교육적 목표 : 균형 있는 삶의 영위

쿠란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믿음—하니프〈이 단어는 쿠란 2 : 135에서 사도 아브라함(그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의 믿음을 묘사할 때 쓰이곤 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인간의 본바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믿음이라는 본 바탕위에서 너희들의 갈길을 정해야 하느니라」(30 : 30)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연성을 믿는 것과 善行을 하려는 경향은 人間의 기본적인 본성에 속한다. 쿠란은 또한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을 최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느니라」(95 : 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의 人間觀은 人間의 마음을 '原罪'라는 사슬에 얽매이게 하고, 인간의 물질적 욕구나 생물적인 욕구를 精神的 소망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간주하는 여타종교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슬람은 인간의 개성을 분할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人間觀을 표방한다. 우리는 토론에서나 특별히 강조할 목적으로 인간성의 정신적, 지적, 정서적, 생물적 측면들을 분리하여 말하곤 하지만 엄

격한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측면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속성의 것들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神聖한 것과 不敬스러운 것, 그리고 精神的인 것과 物質的인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 등 사이에 어떤 분할성이나 이원성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認定치 아니한다. 쿠란에 명시된 예배, 斷食, 회사, 순례 등과 같은「알라」에 대한 기본적인 경배 태도는 무슬림들의 육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그리고 물질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쿠란은 상거래, 무역, 재판관리, 고리대금업, 결혼과 이혼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슬람이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균형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은 물질이나 정신적인 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두 요소간에 평형을 유지하는데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예배를 근행하고 단식을 하며 쿠란을 암송하는 등의 종교적 행위들이 무슬림의 기본적인 생활방식이긴 하지만 무슬림들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가지 현실의 요구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결코 자신이 지니는 자연적인 욕구나 성향을 억제하도록 요청받지 않는다. 단지 이러한 것을 추구하되「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여러가지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자신의 무슬림됨을 스스로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슬람에는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이나 聖禮,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집전하는 특별한 교직계급이 없다. 때문에 이스람에서는 무슬림의 정신적 문제들을 상담하고 지배하는 성직자계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인간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각 개인은「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각 개인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에 권유 하기를;

「너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善한 길로 인도할지니 옳은 것을 즐기고 옳지 못한 것을 禁하도록 하여라. 진정 이들은 성공할 것이니라」(3 : 104)

이 쿠란 귀절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슬림 각자가「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금지한 것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타인에게 이슬람의 진리를 전파하여 이 지구상에「하나님」의 律法이 가득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쿠란은「하나님」에 접근하고 그들의 생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이성과 悟性을 사용할 것을 인간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아무런 생각없이 단지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이웃들의 행동을 모방한다면 그것은 무슬림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에 말씀하시길;

「너희 인간들 중에 학식이 있는 자들만이 진실로「하나님」을 두려워 하느니라」(35 : 28)

고 했으며 사도「무함만」께서도

『지식에의 탐구는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니라』

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이 귀절의 意味는 비록 어느 누구가 제아무리 성실하게 살지라도 자기 삶을 알지 못하고 반성치 아니하며 산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삶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양심의 진실성은 자신의 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겸비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律法에 담긴 無限한 지혜

무슬림들은「하나님」의 계시들이 제멋대로 내려진것도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편 전지전능하시고 자혜로우신「하나님」께서는 精神的으로나 육체적으로 人間의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道德的인 윤곽을 설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법칙들은 인간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들 처럼 영원하며 절대 불변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성질을 아시기때문에 이러한 계율들은 시간적인 제약이 없고, 보편적이며, 人間환경의 모든 면을 고려해서 극단을 피한 중용의 길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도덕적 원칙들 중 어느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이는 한 사회내에 부패라고 하는 병폐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과거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어느 계층에서 든지 이러한「하나님」이 부여하신 도덕적 원칙들이 이행되고

있다면 매우 유익한 결과가 그 사회에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이 원칙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해로운 결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자주 경험했듯이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도덕체계를 무시함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에 해를 끼치고 급기야는 그 사회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가능한 사실인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세계는 계급장벽, 상호반목, 국가이익을 위한 전쟁, 종족간의 투쟁, 치솟는 물질주의, 범죄의 증가, 가족생활의 파괴, 성윤리의 문란, 알콜 및 마약중독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로 휩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자체에 해로움을 미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설정해놓은 道德律을 지키지 않은데서 발생했다고 간주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律法에 의거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조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도덕원칙을 고수할 때 자기이익만을 추구하고 탐욕에 차 있으며 오만한 동시에 부당하고 거짓으로 차있는 사회를 상호간의 존경과 조화와 형제애로 풍만하는 공동체로 변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생존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을, 착취보다는 상호봉사를, 독단보다는 상호협의를 지향하는 것이 이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생활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사도 「무함맏」과 정통 칼리프 들이 보여주었던 생활방식속에서 우리들은 세계 역사상 최초 유일의 이상적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무슬림들이 다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할 때 그러한 공동체가 다시 도래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이슬람의 구체적인 도덕적 교훈들

이제 이슬람의 구체적인 도덕적 교훈들을 살펴보기 위해 「쿠란」과 「순나(Sunnah) : 사도 무함맏의 전통」로 되돌아 가 보자. 즉 우리 무슬림들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하며 대인(對人)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며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며 경제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무슬림의 성격

한 사회의 특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의 특성여하에 달려 있기때문에 우선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가를 살펴보자.

이슬람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 중의 하나는 아랍어로 「타꾸와(Taqwa)」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의식인 것이다. 「타꾸와」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쿠란은 무슬림이 지녀야 할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알라」께서 가장 영예롭게 여기는 자는 항상 그 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자이니라」(49 : 13)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자는 건전한 양심으로 충만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쿠란에 계시되길;

「오,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께서는 너희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을 줄지니라」(8 : 29) 하였다.

또한 예언자 「무함맏」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 한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으로부터 멀리 하리라」 하였다.

이 「하디쓰(예언자 무함맏의 言行錄)」의 귀절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데 따라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지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것이 現世와 來世의 生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겸양, 겸손, 감정과 욕망의 조절, 진실성, 성실, 인내 그리고 확고부동한 마음의 자세 등을 지니도록 권유한다 또한 우리 무슬림들이 약속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뢰감을 저버리지 않으며 모든 채무를 상환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쿠란은 이러한 개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있고 진실하며 믿음이 깊으며 자선을 행하는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새벽 예배를 근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분의 사도로서 간주하느니라」 (3 : 15, 17)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강직하고 확고부동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3 :146)

「너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함에 있어 서로 경쟁할지니 가난할 때나 풍요할 때나 한결같이 자선을 베풀고 노여움을 억제하며 항상 동료들을 용서해 주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이 우주만큼이나 넓도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쌓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수치스런 행동을 하고 죄악을 범한 자들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용서를 빌지어다—그분 이외에 누가 너희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그리고 알면서도 악행을 계속하지 말지어다.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시 맑은 물이 흐르는 천국의 정원에 살게 하여 주시니라. 진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보상을 내리는 법이니라」(3 : 133—136)

「용서를 구하고 선행을 쌓을 지어다; 그리고 無知함에 머무르려 하는 자들을 개의치 말지어다. 악마(사탄)가 너희들을 유혹하려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피난처를 구할지니; 보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도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마(사탄)의 어두운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그들은 의로운 행동을 쌓는 데 실패하는 법이 없도다」(7 : 199—201)

「너희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너희 스스로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될 지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 이전에 聖書를 받은 자들과 다신론자(多神論者)들로부터 시련을 받게 될 지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인내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리라」(3 : 186)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근행하고 정의로움을 행하며 사악함을 금할 지어다 ; 그리고 너희들에 부여된 모든 일을 인내로서 행할지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곧은 마음의 자세이니라. 남에게 자만스런 얼굴을 내보이지 말고 오만한 자세로 걸어서는 안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적절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할지어다; 참으로 높은 목청은 당나귀의 울음소리와도 같느니라」(31 : 18—19)

「무슬림 남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깊은 남녀, 참되고 인내심 있는 남녀, 자선을 베풀고 단식을 행하는 남녀,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남녀— 이들에게 알라께서는 용서와 커다란 보상을 베푸시느니라」(33 : 35)

「그리고 진실을 허위로 위장하거나 너희가 아는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말지어다」 (2 : 42)

「이미 선언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분께서는 진실로 사랑하느니라」(3 : 76)

「오, 믿는 자들아! 너희들의 의무를 이행할 지어다」(5 : 1)

「하나님」께서는 저속하고 해로운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인 것이다.

쿠란에 계시내리길;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지 말지어다; 분명 이러한 행위는 저속한 악마의 길이니라」(17 : 32)

「아직 혼인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정절을 지킬 지어다」(24 : 33)

「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미래를 점치는 일들은 악마(사탄)의 장난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러한 행위들을 삼가할 지니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은총이 있으리라. 악마(사탄)는 술과 도박을 통하여 너희들간에 반목과

증오를 낳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예배로부터 너희들을 멀리하게 하느니라. 그러함에도 너희들은 술과 도박을 중지하지 아니하겠느냐?」(5 : 93—94)

예언자 「무함맏」께서도 말하기를;

『겸양과 믿음은 항시 같이 따라 다니느라. 그중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하나도 없어지느니라』 하였다.

그리고 쿠란 5장 4절에는 무슬림들이 금해야 할 음식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슬림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행위들을 예언자 「무함맏」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주님께서는 9가지의 계율을 나에게 내리셨노라 : 즉 혼자 있을 때나 공중 앞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화날 때나 기쁠 때나 올바르게 이야기하며, 가난했을 때나 부유했을 때나 항시 절제를 지키며, 절교한 친우들과 다시 친구를 맺도록 할 것이며, 자신을 거절하는 자에게 더욱 베풀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침묵을 지킬 때는 항시 묵상에 젖을 것이며 자신의 얼굴이 하나의 타이름이 되도록 할지니; 나는 이와 같이 옳은 일들을 너희에게 권하느니라』

2. 무슬림의 대인관계(對人關係)

무슬림의 對人關係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아랍어로「힐름(hilm)」이라고 하는 데 이는 「관용, 친절, 용서」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는 항상 타인과 접촉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 약점,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오만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들을 경멸하고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은 다음과 같이 계시내리고 있는 것이다.

「노여움을 억누르고 동료들에 관용을 베풀지어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행을 쌓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3 : 134)

「선함과 악함은 같지 않느니라; 선으로 악을 물리칠 지니 그러하면 너희와 반목했던 자도 다시 절친한 친구가 되리라」(41 : 34)

「친절한 말과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일은 상처를 준 다음에 베푸는 자선보다 나은 법이니라」(2 : 263)

예언자 「무함만」께서도 『하인의 잘못을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느냐는 질문』에

「하루에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며 「만일 네가 너의 하인의 잘못에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 그 하인을 자유롭게 하여주라」고 하였다.

남을 흠잡거나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혹은 뒷전에서 험담을 하지 않은 행위들 역시 무슬림이 지녀야 하는 관용과 친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옳은 일을 행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일에 대해 은밀히 담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다 하드라도 타인의 허물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감싸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남을 당혹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책감과 모멸감을 불러 넣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들은 타인의 신앙심과 성실성의 정도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도 안된다. 특수한 사회적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악한 행동이나 사 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겨서도 안되는 것이다. 더구나 더럽고 조잡스런 대화나 종교를 우롱하는 대화를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쿠란은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 믿는 자들아!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말지어다; 조롱하는 자보다 조롱받는 자가 더 나을 수도 있는 법이니라; 여인들 역시 서로 조롱하지 말지니 조롱받는 여인이 조롱하는 여인보다 나을 수 있는 법이니라; 그리고 서로 체면을 깍고 비꼬는 행위를 일삼지 말것이며 서로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별명을 부르지 말지어다.……오 믿는 자들이여! 가능한 의심을 피하도록 할지니; 의심은 경우에따라 죄악이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서로 염탐하지 말고 등뒤에서 남을 비방하지 말지어다……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항시 그분을 생각하는 자들을 가장 영예롭게 여기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도다』(49 : 11−13)

『대부분의 경우 密談은 옳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자선을 베풀고 義로움을 행하며 사람들간에 중재에 나서는 것은 비밀이 허용되느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그분께서는 최상의 보상을 내려 줄지니라』
(4 : 114)

『오 믿는 자들이여 사악한 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너희에게 전해온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사람들을 해롭게 할 것이며 너 자신은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한없이 후회하게 될지니라』(49 : 6)

예언자 「무함맏」께서도 『무슬림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길은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라 밝히며 『진정한 무슬림은 자신의 혀와 손으로 다른 무슬림들을 안전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3. 무슬림의 사회적 책임

무슬림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슬람의 교훈은 타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친절해야 한다는 계율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칫 무시될 수도 있으나 이슬람은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對人關係에 대한 계율들은 가족의 성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친족, 이웃, 친우, 知人, 고아와 과부, 곤궁한 사람들, 동료 무슬림, 모든 인류, 그리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1) 부모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부모에 대한 존경과 관심은 이슬람의 기본적인 가르침 중의 하나이며 무슬림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과 「하디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주께서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너희 부모에게 친절할 것을 명하셨느니라. 너희 양친부모가 연로해졌을 때 그들에게 멸시하는 말을 하거나 내쫓아서는 아니되며 그들을 영예롭게 대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양친부모에게 공손함을 표하며 말할지어다; 「오 주님이시여! 저의 부모가 어렸을 때 저를 보살폈던 것처럼 당신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17 : 23-24) (31 : 14)

『어떤 사람이 예언자 「무함맏」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제가 누구를 가장 돌보아야 합니까?"; 예언자께서 답하기를, "첫째는 너의 어머니이니라. (세번씩 반복하여 강조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이며 그리고 너와 가까운 친족들이니라"하셨다』

2) 부부관계와 자녀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남자가장(家長)으로 하여금 그들의 부인들과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家長은 자신의 식구들에 의식주를 제공하고 집안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과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부인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가정에서 안락하게 해주고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부부사이에는 서로간의 사랑과 신뢰와 애정과 서로의 약점을 용서하는 관용이 있어야 하며 서로 온정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에지만 서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 대해 존경을 표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부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쿠란」과 「하디쓰」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보다 한가지의 것(힘)을 더 주었나니 남자는 여자에 대한 보호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의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계시내린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부재 중에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야 하느니라』(4 : 34)

『부인들은 남편들의 의복이며 남편 또한 부인들의 의복이니라』(2 : 187)

『사도 「무함맏」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 중에 완벽한 신앙을 보이는 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가족에 최상의 친절을 베푸는 자이니라" 하셨다』

3) 친척들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서는 혈연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곤궁한 자나 여행자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너의 친척들에게도 알맞는 대접을 할지어다; 그러나 너의 부를 무절제하게 낭비하지는 말지어다』(17 : 26)

『그들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자선을 베푸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말하라 ; 어떠한 선행을 쌓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2 : 215)

4) 이웃을 대하는 태도

한 개인의 성격은 그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이웃에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무슬림의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하디쓰」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 「무함맏」에게 물었다; "「하나님」의 사도여! 내가 잘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읍니까?" 예언자께서 답하시기를; "너의 이웃이 네가 한 일을 잘한 일이라 하면 잘한 것이요. 그들이 네가 한 일이 옳지 못하다 하면 너의 행동은 옳지 못한 것이다"하였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이 굶주리는데 혼자만의 배를 채우는 자는 不信者이니라"하셨다』

5)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태도

어느 사회에서나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떤 과부가 남편에 대한

추억 때문에 재혼하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녀가 재혼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다.

예언자 「무함맏」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위해 투쟁하는 자와 다를바 없느니라』하셨다.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척집안에 고아가 생겼을 때는 이 고아를 자신의 자녀들처럼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친척이 없거나 친척이 있어도 그 고아를 돌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다른 무슬림이나 무슬림단체에서 이 어린이를 따뜻하게 돌보아 줘야 하는 것이다.

「쿠란」과 「하디쓰」에 명시되어 있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고아에 대해 묻거든 다음과 같이 말할지어다; 고아들을 돕도록 하라.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눌 때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 되리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그르치게 하는 자와 선행을 쌓는 자를 구별하시느니라』 (2 : 220 역시 4 : 2, 6, 10, 127 17 : 34절 참조)

『예언자 무함맏께서 말씀하시길; "친척이든 아니든 고아들을 돌보는 자는 천국에 가리라"하였다』.

6) 곤궁한 자에 대한 태도

가난한 자에 자선을 베푸는 「자카트(救貧稅 : Zakat)」는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네 번째 의무인것이다. 모든 무슬림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자카트」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자카트」말고도 곤궁한 자에 대해 베푸는 자선에 대해 「쿠란」과 「하디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곤궁한 자를 돕는 것이 이슬람의 매우 중요한 믿음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기의 무슬림들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자카트」를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룬 적이 있었다.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베푸는 자선의 행위들은 관대하고도 친절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바, 받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부담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쿠란」과 「하디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을 위해 그들의 부를 쓰는 자와 자선을 베푼 후 받은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커다란 보상을 내려 줄지니라』(2 : 262 — 263)

『오,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정당하게 얻은 것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지상의 것으로부터 얻은 것만을 타인에게 베풀지어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까지도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항시 풍요로우시며 찬미에 가득차 있다는 것을 명심할 지어다』(2 : 267)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베풀어야 하는가를 묻거든; 말할지어다; 저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베풀라고』(2 : 219)

『너희들이 자선을 베풀 때 남들이 알게 하여도 무방하느니라; 그러나 남이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욱 훌륭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너희들의 옳지 못한 행위들을 상쇄케 하느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실지니……너희들이 자선을 행함은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베푸는 자선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희구하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어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행한 이러한 모든 자선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상해 줄 것이니 너희들에게 손해됨이 없을 것이로다』(2 : 271, 273)

『채무자가 곤궁에 처해 있으면 그가 갚을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줄지어다. 그러나 만일 그 채무를 자선으로 대치한다면 그것은 오직 너만이 아는 최상의 자선이 될 것이니라』(2 : 280)

『예언자 「무함맏」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사이에 공정을 베풀고, 타인의 짐을 들어주는 것도 자선이니라. 좋은 말씨도 자선이며 예배를 행하러 가는 한발자욱이 바로 자선이니라. 길가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 또한 자선이니라"하셨다』

『예언자 「무함맏」께서는 모든 무슬림이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런데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어떻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언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너희 두 손으로 노동을 하여 벌어들인 이익으로 자선을 베풀라고」

위에서 언급한「쿠란」과「하디쓰」의 귀절들은 자선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하는 행동 모두가 자선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7) 동료 무슬림을 대하는 태도

무슬림들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成員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슬람이란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며 동시에 서로가 형제자매가 되어 한 가족의 식구들처럼 화목하게 지내야하는 것이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모두 한 형제이니라」(49 : 10)

「「하나님」의 밧줄을 견고히 잡고 서로 분열하지 말지어다」(3 : 103)

「예언자「무함맏」께서도 말씀하시길 : "믿는 자들은 사람의 육체와 같으니라. 그의 눈이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그의 신체 모든 부분이 아프게 되느니라"하셨다」

「예언자께서 무슬림은 여섯가지의 친절한 행동을 동료 무슬림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인사를 하고 초청을 하면 거절하지 말 것. 그리고 재채기를 하게 될 때는 항상「하나님」의 자비가 있으소서(야르 함카 알라(Yar hamka Allah), 라고 이야기하여 병든 자를 찾아가 문병하며, 사람이 죽거든 장례행렬에 참가할 것이로다.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도록 하라"고 하셨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무슬림은 서로 형제일지니 서로 나쁜 일을 하고 배반하지 말라. 누구든 동료 무슬림을 도와주는 자는「하나님」께서 돌보아 줄 것이니라. 또한 서로가 서로의 근심을 덮어주면「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근심을 덜어 주리라. 그리고 다른 무슬림의 비밀을 지켜주는 자 역시 최후의 심판날에「하나님」께서 그의 비밀들을 숨겨주느니라"하셨다」

8)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알라」께서는 인간을 심판할 때 인간이 저지른 행위와 그 의도에 준하여 심판한다. 때문에 가문, 국적, 종족, 사회적 신분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모든 동료 인간들을 특정한 편견이나 구별없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에 말씀하시길;

『오, 인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한 남자와 여자로부터 창조하여 여러 종족으로 번성케 했으니 너희들은 서로 친숙하게 될지니라. 진실로 너희들 중에 「알라」께서 가장 기특히 여기시는 자는 항상 그 분만을 염원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도다』(49 : 13)

『예언자 「무함맏」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피조물은 「알라」의 자녀들이니「알라」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친절히 대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하셨다.

9) 동물을 대하는 태도

친절한 태도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베풀어져야 한다. 예언자께서는 인간들이 동물을 굶주리게 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을 도살하는 것과 뱀, 모기, 전갈, 파리 등 인간을 해치는 동물과 곤충을 죽이는 일은 금기 사항이 아니다.

『예언자께서 그 추종자 몇 사람과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예언자께서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추종자 중의 어떤 이가 두 마리의 어린 새가 있는 둥지를 발견하고 이 어린 새들을 둥지로부터 꺼내 가졌다. 어미새가 둥지로 돌아와서는 날개를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예언자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새끼 새를 꺼내어 어미 새에게 고통을 주고 있느냐? 새 새끼를 어미새에게 돌려주어라"하셨다』

4. 무슬림은 어떠한 경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슬람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로서 인간

이 즐겨쓰는 대지, 농작물, 삼림, 바다, 광물, 천연자원 등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代理人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부와 물질은 「알라」를 위해,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고아, 과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유용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값어치 있는 富는 성실한 노동과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富는 남에게 자랑을 하고 뇌물을 주며 남을 억압하고 해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경제적 부 역시 「하나님」께서 그 국민들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한 국가의 경제 역시 소수를 위한 부의 불공평한 분배라든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착취보다는 공평한 분배를,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이슬람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때문에 이슬람은 이자를 받는 행위, 도박, 매점 매석, 탐욕, 과욕, 등을 금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한 「쿠란」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너희들의 부(富)를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어서도 아니되느니라』(2 : 188)

『오, 믿는 자들이여/ 2중, 3중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느니라/ 진정 너희들은 「알라」를 두려워 할지니 그러면 너희들에게 번영이 있으리라』(3 : 130)

「오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의 富를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지니 모든 거래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로다」(4 : 29)

「너희들의 富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알라」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알라」께서 내려주신 부(富)로서 來世에서의 안식처를 찾도록 노력할지니 現世에서의 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지어다 : 「알라」께서 너희들에게 선(善)을 베풀어 주셨듯이 너희들 역시 몹쓸 짓을 해서는 안되느니라 ; 「알라」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느니라」(28 : 76—77)
(※ 그외에도 쿠란 4장 96절, 17장 29절 등을 참조바람)

상거래에 있어서의 성실, 신뢰성, 그리고 공정한 거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사기행위, 상품의 결점을 속여 파는 행위, 다른 사람의 무지(無知)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무슬림들에게 있어 금기 사항인 것이다.

「무함맏」께서 계시를 받아 예언자가 되기 전 여러 해 동안 「멕카」의 주민들은 그를 「알-아민(al-Amin)」 즉, 신뢰할만한 자로 불렀던 것이다. 그의 공정한 상거래는 그를 고용했던 미망인 「카디쟈」에게 깊은 인상을 불러 일으켜 그녀가 「무함맏」에게 청혼하기에 이르게까지 했던 것이다. 「카디쟈」의 청혼은 그녀와 「무함맏」간에 가로 놓여있던 연령과 빈부의 장벽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공정한 상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

「금전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할지어다 : 너희들은 너희 주(主)를 두려워 하라」(2—283)

「물건을 잴 때 정확히 재고 무게 역시 확실하게 하여 팔도록 할지니: 이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너희들에게 이로운 것이 되리라」(17 : 35)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서면(書面)의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느니라……두 남자를 증인으로 설정해야 하느니라; 만일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증인으로 택할지니 이것은 그들

증인 중 어느 한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니라; 거래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할지니 이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증거이며 너희들을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라」(2 : 282)

5. 무슬림은 행정적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정부의 관리와 판사들은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압력단체나 편견 등으로부터 정의로움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인간사나 더 나가서는 國家事를 다루는데 있어 정의와 공정을 행할 것을 하나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의 이익마저 이러한 「하나님」의 命에 역행할 수 없는 것이다.

「오 믿는 자들이여! 義로움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될지니 사악한 행동과 不義를 행하여 사람들의 증오를 사지 말도록 하라」(5 : 9)

「오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義로움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설지어다. 심지어 너희 자신이나 너희 부모와 친척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不義를 행하거든 그들에 대항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不義에 대항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느니라」(4 : 135)

국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정의를 베풀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것은 국가 통치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통치자에게 국민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여러 가지 國政을 국민들이나 국민의 代表들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너희들 스스로 협의할 지어다」(42 : 38)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로 선임된 자에게 복종할지니라」(4 : 59)

「예언자 「무함맏」께서 말씀하시길;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통치자의 의견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무슬림의 의무인 것이니라. 그러나 통치자가 「하나님」에 대한 不敬을 명령할 때는 이를 들어서도 안되며 따라서도 아니되느니라"하셨다」

6. 「지하드(Jihad : 聖戰)」: 「하나님」을 위한 투쟁.

「지하드(Jihad)」는 「지하드 휘 사빌 알라(Jihad fi Sabeel Allah)」라는 말의 준말로서 「하나님」의 길을 위한 투쟁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 「지하드」는. 이슬람을 위한 투쟁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 「지하드」는 이슬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전달하고 악과 부패에 대항하며 不義, 사회적 不平等, 무지, 빈곤, 질병 등 인간의 여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슬림끼리 힘을 합쳐 투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義로운 것으로 초대할지니 : 옳은 것을 명하고 사악한 것을 禁하는 자들은 진실로 성공할지니라」(3 : 104)

「너희들은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훌륭한 공동체를 가졌나니 義로움을 쌓고 惡行을 禁하며 「하나님」을 믿을지어다」(3 : 110)

「오 너희 믿는 자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염원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며 그분을 위해 투쟁할지니 :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를 주느니라」(5 : 35)

「너희 인간들아, 너희들이 "우리들은 믿는도다"라고 말만 하므로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29 : 2)

「누구든 「알라」를 위해 투쟁하는 자는 바로 그 자신을 위해 싸우는 자이니라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로부터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느니라」(29 : 6)

「알라」를 위한 「지하드」의 다른 한 형태는 억압받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다. 「쿠란」에 계시되길 :

「하나님 「알라」를 위해 싸우다 압제의 고통 끝에 저들의 고향을 떠나는 자들에게 「알라」께서는 또 다른 안식처를 마련해 줄 것이니라 :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투쟁에 대해) 現世보다 来世에서의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16 : 41)

또한 압제자와 침략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할 경우도 있다. 「알라」께서는 무슬림들에게 침략행위를 금할 것도 명하셨지만 무슬림들을 억압하고 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투쟁할 지어다. 그러나 침략행위를 해서는 안되느니라 : 진실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침략자를 사랑하지 않느니라」(2 : 190)

「먼저 침략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라. 「알라」께서는 그들이 과오를 범했으므로 무슬림들이 투쟁할 것을 허락하시었도다 : 진실로 하나님 「알라」께서는"나의 주는 「하나님」"이라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도움을 줄 것이니라」(22 : 40—41)

이슬람의 도덕관은 개인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의무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우리들이 무슬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의무란 면안목에서 볼 때 결국 권리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권리 역시 갖고 있다"는 말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의 의무와 권리는 인간이 만든 윤리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예언자 무함맏」의 언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슬람이 지향하는 도덕관은 다른 倫理체계의 그것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그 근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예를들어 상거래에 있어서 성실과 공정을 강조하는 것은 이슬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러한 성실과 공정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하므로서 경제적 원칙을 하나의 도덕적 원칙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성실하고 공정한 무슬림사업가는 건전한 사업운영으로부터 이익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율을 지킨다는 정신적인 이로움 역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무슬림사업가가 사기를 행할 때 이것은 그의 동료인간에 대해서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불복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해 보면 이슬람의 도덕관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슬람은 타

인에 대한 의무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슬람의 도덕적 가르침은 20세기의 미국에서나 7세기의 아라비아반도에 공히 적용시킬 수 있는 성실, 정의, 친절 그리고 자선과 같은 행동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떠한 변화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니라.」
(35 : 43)

안　　　내

※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 : 서울중앙사서함2865
☎ 794－7307・793－6908
※ **부산지회** : 부산직할시 중앙동4가77－3
☎ 44－3506
※ **젯다지회** : Haji Ibrahim Jeon, P. O. Box 430
Jeddah, Saudi Arabia.
☎ 50020

이슬람을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기 주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文庫 ⑧

이슬람의 道德觀

비매품

인쇄일 : 1978. 3. 16
발행일 : 1978. 3. 25
편집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선교부
발행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중앙사서함2865 전화 : 794-7307, 793-6908
인쇄처 : 한국문화인쇄사 : 777－3930・3931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٨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٨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أخلاق في الإسلام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